



판국을 공연하고 있는 사단법인 마로.

한리일보DB

## 내년 지역 예술단체 제주 4개 단체 ‘도전’

도, 자체 공모 통해 선정  
문체부 최종 심사 거쳐야  
길아트댄스·오페라연구소  
예술공간 오이·마로 참여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년 지역 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 공모에 제주 4개 예술단체가 도전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지역 대표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자체 공모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18개 단체 중 심사를 거쳐 4개 단체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무용 분야는 길아트댄스컴퍼니, 음악 분야는 제주오페라연구소, 연극 분야는 예술공간 오이, 전통예술 분야는 사단법인 마로가 각각 뽑혔다.

심사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승무 이수자인 김진원 (사)대한무용협회 상임이사, 현대음악 작곡가인 김명순 대전보건대 겸임교수, 극단 갯돌 예

술감독인 손재오 (사)한국민족극협회 이사장,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전문위원인 류호철 안양대 교수, (사)한국작가회의 부이사장인 김수열 전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등 5명이 참여했다. 심사위원단은 “제주 지역 공연예술계의 뛰어난 창·제작 역량에 감탄했다”며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만큼 우수한 단체들이 경합해 장르별 1개 단체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선정된 단체들은 이달 문체부 최종 심사를 거쳐야 한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되면 공공공연장과 협업체 내년 중 공연 1개 이상을 창·제작하고, 도내 3개 공연장에서 6회 이상 공연, 시즌단원 운영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문체부는 최종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예술단체에 지자체와 함께 단체당 연간 최대 2억원(국비·지방비 합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 청소년들의 댄스 대결 제주MBC 13일 방송

제주MBC는 이달 13일 오후 9시 30분 특집프로그램 ‘카운트다운 라이브(LIVE) 원격대결’을 방송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전파진흥협회의 ‘2025 지역방송 인공지능(AI) 제작 실증사업’ 제작지원작으로, 제주고등학교 댄스부 ‘크로커스’와 대

정여자고등학교 댄스부 ‘이터니티’ 등 도내 고등학교 두 곳을 선정해 청소년들의 댄스 대결을 그려낸다.

프로그램은 제주고등학교, 대정여자고등학교, 제주MBC 공개홀 등 3곳에서 동시에 원격연결을 통해 총 3라운드의 대결과 심사가 이뤄진다. 고보나·홍승일·현우진 안무가가 심사했다. 제주MBC 유튜브 채널 ‘뽀빠씨’를 통해서도 영상을 볼 수 있다.

박소정기자

## 재즈·합창 입힌 캐럴… “크리스마스 설렘을”

크리스마스(12월 25일)을 앞두고 그 설렘을 전하는 공연들이 펼쳐진다. 합창과 관악, 재즈를 입힌 캐럴로 겨울밤을 물들인다.

서귀포합창단 ‘하얀겨울’  
제주도립 서귀포합창단이 이달 11일 오후 7시 30분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제85회 정기연주회 ‘하얀 겨울(White Winter·화이트 윈터)’을 연다.

이번 공연은 ‘겨울을 여는 소리’, ‘겨울의 기억’, ‘겨울의 환희’ 등 세 개의 무대로 구성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겨울의 설렘을 전할 캐럴 등을 합창으로 전한다. 박위수 상임지휘자와 합창단 오세용 트레이너가 각각 지휘를 맡고 서귀포관악단 앙상블과 벨라어린이합창단이 협연한다.

공연은 올라 야일로의 ‘고결한 인사’와 두 대의 바이올린 협연이 어우러지는 바로크양식의 합창곡인 그르제고슈 게르와지 고르치츠키의 ‘당신의 힘으로’, 머빈 워렌·마크 킴블 편곡의 ‘재즈 할렘루아’, 무반주 합창곡인 요제프 라인베르거의 ‘저녁의 노래’, 지혜정의 ‘야, 겨울 온다!’, 마크 헤이스 편곡의 ‘북치는 소년’, 이선택 편곡

서귀포합창단·한라윈드앙상블·체임버오케스트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제주, 재즈와 제주하다’ 공연

의 ‘캐럴 메들리’ 등을 들려준다. 이번 공연은 8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된다. 예매는 서귀포이(e)티켓 누리집에서 이달 10일 오후 5시까지 하면 된다.

시민밴드 한라윈드앙상블  
제주 대표 시민밴드인 ‘한라윈드앙상블’이 이달 12일 오후 7시 30분 제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제81회 정기연주회를 연다.

이번 연주회는 ‘캐럴과 함께하는 겨울밤의 서정’이라는 부제로 관악합주와 함께 재즈·록·칼립소 등으로 편곡된 캐럴들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선사할 예정이다. 지휘자 김재웅이 지휘를 맡고, 테너 김진규가 협연자로 함께한다.

공연은 제이거의 ‘신포니아 노블리시마’, 스티븐 라이니키의 ‘필라투스-마운틴 오브 드래곤즈’, 푸치니의 ‘네소 도르마’ 등 클래식한 관악곡과 이와이 나오히로의 편곡 ‘디즈니 판타지’를 비롯한 ‘징글벨’, ‘화이트 크리스

마스’ 등을 들려준다. 공연 관람료는 일반 5000원, 학생 1000원이며 현장 예매하면 된다.

재즈 보컬·연주자들 함께  
제주에서 성탄절 전야인 크리스마스 이브에 재즈 공연이 펼쳐진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은 이달 24일 오후 7시 30분 제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크리스마스 기획공연 ‘제주, 재즈(JAZZ)와 제주하다’를 연다.

이번 공연에는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중인 재즈 보컬리스트와 연주자들이 함께한다. 수임콜렉티브 워드 더레이, 니카, 김한얼 트리오, 체스싱어즈, 마리아킴, 뉴아시아무용단, 제주어린이중창단 등이 출연해 ‘카라반’, ‘저스트 더 투 오브 어스’, ‘화이트 크리스마스’, ‘벡츠 잇 스노우’ 등 크리스마스를 대표하는 곡들과 재즈 스탠더드, 제주를 모

티브로 한 창작곡 등을 들려준다. 초등학교 이상 관람 가능하며 예매는 제주문화예술진흥원 예매시스템(www.eticketjeju.co.kr)에서 하면 된다.

체임버오케스트라 ‘삼다도소리’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은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의 창작음악회 ‘삼다도 소리’를 이달 6일 오후 5시 공연장에서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2025년 김정문화회관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마지막 무대로, 제주지역 작곡가와 편곡가들이 참여해 ‘제주의 돌·바람·여자’를 주제로 창작한 곡들을 들려준다. 작곡가 박수현의 ‘제주의 돌·바람·여자’, 이승후의 ‘제주도의 사계 중 ‘겨울’”, 김남훈의 ‘삼다도 소리’와 ‘제주도의 푸른 밤’, 문효진의 ‘오돌토기+노영나영’ 등 제주 정서를 담은 작품들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선사한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입장권은 서귀포e티켓을 통해 하면 된다.

박소정기자

### 청년작가의 수목 드로잉 ‘아래로부터의 삶’

현은주 첫 ‘베렝이 자파리’전

제주 청년작가 현은주가 제주시 삼도2동에 있는 포지먼트제주 갤러리에서 첫 개인전 ‘베렝이 자파리’를 열고 있다.

서른이 된 작가는 과수원에서 나고 자라 벌레와 친숙했던 유년시절을 토대로 땅에 납작 웅크릴 수밖에 없는 ‘아래로부터의 삶’의 형태에 주목한다. 주로 먹에 나무젓가락을 찍어 그리는 수목드로잉 기반 작업을 하는 작가는 “비가시화된 소수자의 복합적인 감정”을 벌레와 인체에 빚대어 독특한 화풍으로 그려낸다.



현은주 ‘줄탁동기’

제주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미술학부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작가는 현재 탐미미술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5 제41회 제주도 미술대전 한국화 부문 특선을 받았다.

박소정기자

아홉 개 시선이 빚어낸 제주

제주예술오름사람들이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에 있는 돌하르방 미술관에서 첫 전시회를 열고 있다.

이번 전시는 제주예술오름사람들 소속 9명의 작가들이 ‘제주’를 주제로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제주의 자연풍경과 제주에서의 일상과 기억, 시간의 결을 비롯해 돌담, 동백꽃, 4·3 등 아홉 개의 시선이 회화, 사진, 조각, 도자기, 유리공예, 출판 등으로 빚어낸다. 전시는 이달 7일까지 이어진다.

박민진 대표는 “작품 사이를 걸으며 제주를 여행하는 듯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박소정기자

고난영·이설아 철보공예전

제주시 아라동 심헌갤러리에서 제주금속공예가협회에서 활동하는 고난영·이설아 작가의 2인전 ‘소소한 행복’이 열리고 있다.

이달 7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철보 공예라는 공통된 기법 안에서 각기 다른 주제와 표현을 탐구해온 두 작가의 작품들을 선보인다.

고난영 작가는 두꺼운 동판에 철보의 색깔을 입혀 전통 민화에 등장하는 호랑이와 까치, 봉황과 꽃 등을 입체적으로 담아냈다. 이설아 작가는 은박 위에 은선을 올리고 유선 철보 기법을 사용해 자연물에서 영감을 얻어 작업한 장신구나 합 등을 선보인다.

박소정기자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

## 제주 주차 안심번호로 안전한 개인정보

주정차 시 연락 등의 이유로 차량 앞에 적어놓는 휴대폰 번호, 차량 앞 휴대폰 번호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 제주 주차안심번호는 휴대폰 번호 대신 QR코드를 이용하여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QR코드와 ARS전화로 개인정보 노출걱정 NO !!



문의처 : 서귀포시 다지털혁신과 (064-760-2272)